

TV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able with 2 columns: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EBS Plus 1 and 2.

스타 리얼리티 쇼, 어디까지 진짜?

“솔직하고 개성있어 인상적” vs “너무 지나치다” 논란

축망받는 꽃미남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방송 파트너가 무례하다며 뽀로롱 얼굴을 하고 클립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다.
지난달 24일 엠넷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유아인의 톨치 마이 라이프’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여겨진다. 실정은 허구지만 시청자가 프로그램 속 캐릭터를 실제 모습처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조권과 가인은 ‘우결’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로 각인되며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다.

다른 걸그룹과 차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 이미지 개선 vs 역효과 야기=리얼리티쇼는 스타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출연 스타들은 가치 없는 모습을 카메라에 비추지만 때로 이런 모습이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유아인의 톨치 마이 라이프’는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다 도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 후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연예인의 틀을 벗어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솔직하고 개성 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했다. 가식을 좀 떨어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엠넷 ‘유아인의 톨치 마이 라이프’

그대로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고쳐해 버리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우결’에 출연했던 한 배우는 당시 오빠라고 부르던 파트너보다 실제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짓말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이 배우는 4개월 만에 하차했다.
/연합뉴스

“재미있는 광대 되고 싶어요”

조진웅, KBS 주말극 ‘사랑을 믿어요’ 철수 역

키 185cm에 몸무게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20kg까지 나갔다. 두세 달 만에 30kg를 뺐다.
“덩치가 크니 어디 가도 눈에 띄었고 여기저기서 쫓겨나야 했어요. 부산에서 대학(경성대) 다닐 때 부산 지역 거의 모든 공연장에 있었을 정도로 극단마다 잘 불러 무대에 세웠어요.”
본명 조원준. 예명인 ‘조진웅’은 데뷔작인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때부터 썼다. 그런데 그 예명이 바로 자기 아버지 이름이다.
“아버지가 ‘가져갈 게 없어서 이름을 가져가냐’고 핀잔을 주셨지만 지금은 되게 좋아하세요.(웃음) 아버지 함자에서 느껴지는 힘이 좋았어요. 우뢰 진(震), 수컷 웅(雄)이거든요.”



영화화에 지원했죠, 사실 그때까지도 연기가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우라는 직업을 안 했으면 어찌했을까 싶어요.(웃음)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손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사진이 나 후반에는 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쓴다.
“덩치에 안 어울리잖아요. 영화 ‘폭력 씨름’ 때 감독님이 싸움 장면에서 제 손을 사부터 얼굴까지 카메라로 훑으려고 하다가 손을 보고 기겁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손은 클로즈업 뒀어요.(웃음)
그런데 그의 연기폭이 넓고 섬세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약국집 아들들’은 스크린에서 5년간 활동했지만 무명이었던 그를 세상에 알린 작품이다. 그에 이어 ‘사랑을 믿어요’를 집필하는 조진웅 작가는 이번에는 조진웅에게 꿈꾸는 착한 청년의 옷을 입혔다. 이 청년은 곧 천방지축 스타일리스트 명희(한재아 분)와 알콩달콩 사랑을 가꿔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4일(음 3월 2일) 壬丑), and 子 through 亥. Rows show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Language learning advertisement for 'Gut Morning English' and 'Nihao Jungsui'. Includes Korean, Japanese, and Chinese text about learning to order food and understand phrases like 'I'll get them right away'.